

## 패션에 나타난 감성과 감정의 조형적 특성 연구

김유진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Formative Properties of Sensibility and Emotion in Fashion

You-Jin Kim · K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3. 5. 20.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ffective design strategy and distinguish productions for the consumer's emotion satisfaction by analyzing formative properties of fashion sensibility and emotion. 54 photos of contemporary costume have been selected which represented the Izard' D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bi-polar 25 pairs adjective scale of fashion sensibility and the 18 noun scale of emotion was distributed to 970 male and female living in Pus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GLM using the statistic SPSS package.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In the clothing formative properties following fashion sensibilities, aestheticism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lhouette and texture, maturity in the silhouette and color, character in the texture and decoration and femininity in the pattern and color. 2. In the clothing formative properties following emotions, negative emotion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ttern and silhouette, distress · fear in the silhouette and pattern, arousal in the texture and color, shame in the color and texture and enjoyment in the silhouette and pattern. 3. In the fashion sensibility and emotion following clothing formative properties, each formative property shows differences in fashion sensibility and emotion. This study result will be utilized in the clothing design development in special usage like theatrical costume, discriminated display and advertisement stratge.

**Key words:** fashion sensibility, emotion, formative property; 패션감성, 감정, 조형성

### I. 서 론

가치 소비의 양상이 제품 본래의 물적 가치보다도 인간 중심의 지적, 감성적 가치가 중요시됨에 따라 제품 디자인의 환경은 소비자의 감성적, 정서적 요구 즉, 쾌적성, 흥미성, 사용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기업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경쟁자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극도로 짧아진 제품수명주기로 인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 만족을 위한 디자인 개발과 제품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감성 소비에 공헌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이며, 디자인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가 되고 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 행동분야에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비 감정(consumption emotion)은 의류학에서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연구(보조) 비(4년과제)에 의한 연구임.

도 쇼핑행위나 의복착용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최선형, 이은영, 1994; 유창조, 1996; 박은주, 소귀숙, 2000)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패션감성과 함께 감정을 측정하여 감정의 이해를 넓히고자는 다각적인 연구(김유진, 이경희, 2003)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만족/불만족을 지각하게 되는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소비자들의 감성과, 유패함과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결정이 디자이너의 개개인의 감성에서 소비자의 일반 감성으로 전환되어야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적 차원인 감성과 감정, 제품의 물리적 차원인 제품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김장호(1996)에 따르면 조형은 물질로서의 소재를 가지고 형태로서의 양식을 실현함으로써 기능으로써의 의미를 구현하는 행위, 과정, 수단을 말하며 의복 또한 소재와 양식을 통하여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오늘날의 의복은 아름다움, 즐거움을 나타내는 심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의복이 하나의 기호와 의미가 되어 자신의 외부환경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 개개인의 감성과 감정을 나타내는 제품조형의 특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패션감성에 관해서는 형태, 색채, 재질 등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의복의 품목을 한정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패션감성과 객관화된 의복조형의 범주에서 그 관련성을 밝히고자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패션제품에 있어서도 감성뿐 아니라 감정에 관한 측면, 소비자 만족에 대한 관심이 함께 주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패션을 통한 감성과 감정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패션을 하나의 인간 환경의 코드로 이해할 뿐 아니라 감성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상품 기획의 기초 자료로서도 그 활용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감성과 감정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소비자의 감성디자인에 대한 욕구와 가치를 해결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고자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감성적인 소비자

의 기호에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II. 감성에 대한 디자인 연구

감성 소비에 공헌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가 되고, 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한다.

감각적인 경험을 제품이나 환경에 응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일은 제품이나 환경의 주체자인 인간의 감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의 감성적 요구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감성 척도에 의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적 요구의 중요도나 선호도, 상관관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감성 측정방법을 체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감성디자인은 주로 공학적 접근이 용이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김윤희, 1993; 권규식, 1997; 황상돈, 기도형, 1999) 이는 인간이 제품에 요구하는 감성요소들을 실제 제품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중요한 속성을 범주화하고 추출된 속성들을 조합하여 감성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점차 심미성과 쾌적함이 요구되는 가구와 환경디자인 분야(김진호 외, 2002; 박수찬 외, 2002)에 까지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패션감성과 관련한 디자인 연구는 주로 직물에 대한 감성이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Kobayash, 1987; 박수진 외, 1997; 박수진 외, 1998; 조현승, 이주현, 1998). 그리고 의복조형성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색채(은소영 외, 2002; 황상민, 김경인, 1999), 재질(오해순, 이경희, 2002), 무늬(김윤경, 이경희, 2002; 조현승 외, 1998), 장식(김유진, 이경희, 2000)등의 의복 조형요소에 따른 패션감성의 의미구조와 평가차이를 밝히고자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제품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현승, 이주현(2000)은 소비자의 감성을 기반으로 한 꽃무늬 스카프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은 호오(好惡)·심미감, 온화감, 악센트감 리듬감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패턴 디자인의 최소단위와 최소반복단위를 개념화한 후 패턴 디자인 요소의 분석체계 개발가능

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김미지(1996)는 감성 과학을 이용하여 여성복의 색채와 질감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감성과 의복조형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영진(1997)은 단정한, 신선한, 소프트한, 편안한 등의 11개의 형용사에 대해 실루엣, 칼라모양, 여밈타입 등 재킷 디자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공학을 활용한 재킷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경희, 김유진(2001)은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의복조형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즉, 장식성을 나타내는 화려한 감성에서는 트리밍, 광택 재질감, 악센트 배색, 비정형의 무늬와 관련이 높으며 여성성을 나타내는 여성적인 감성은 트리밍, 사실적 무늬, 단색, 비치는 재질감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연성을 나타내는 부드러운 감성은 네크라인과 단색, 사실적 무늬, 부드러운 재질감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감성을 디자인 요소로 구체화시키는 연구는 대상에 대한 감성 부여의 방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설명함으로써 감성을 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초적 틀을 제공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의복의 품목 혹은 의복조형성을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태, 색채, 재질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패션경향과 소비자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감성디자인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의류학에서의 감정 연구는 주로 소평행위나 의복착용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므로(최선형, 이은영, 1994; 유창조, 1996; 박은주, 소귀숙, 2000) 디자인과 관련한 감정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자극물 구성

패션감성과 감정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패션 사진의 수집은 현재의 패션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1997년 F/W부터 2002년 S/S까지의 국내외 패션잡지(Collections, Collezioni Donna, Book Moda 등)의 의복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패션감성 뿐 아니라 감정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감정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의복자극물을 대상으로 실제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Izard(1977)의 DES(Differential Emotion Scale)에 준하여 선정하였으며 감정 유형 10가지(흥미, 기쁨,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공포, 수치, 죄책) 중 패션 사진에 의해 유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죄책 항목을 제외한 9가지 항목에 따라 형태, 색채, 재질, 무늬, 장식에 의해 표현되는 의복디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18개씩의 162개의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패션감성과 감정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해 예비조사를 거쳐 판별 분석결과와 감정어휘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9개 항목에 대해 각 6개의 사진을 선정하여 본조사에서는 162개의 사진 중 총 54개의 의복자극물을 사용하였다. 의복자극물은 모델과 배경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얼굴 등을 제외시켜 동일한 크기(11×15cm)로 회색지에 부착, 코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 2. 평가도구

패션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구성은 이미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어휘의 수집이 이루어졌고 의복의 조형성을 나타내는 형태(김유진, 이경희, 2000), 색채(은소영 외, 2001), 소재(오해순, 이경희, 2000), 무늬(김윤경, 이경희, 2000)에 따라 범주화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과 이경희(2001)의 패션감성의 평가도구(Fashion Sensibility Scale:FSS)에 준하여 27쌍의 패션감성 어휘를 선정하고 양극의 7점 형용사 척도를 구성하였다.

감정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은 Izard(1977)의 DES(Differential Emotion Scale), Mehrabian과 Russel의 PAD(1974), Plutchik(1980)의 EPI(Emotional Profile Index)가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감정의 차원을 밝히거나 얼굴 표정에서의 감정반응이 아닌 의복 자극물을 대상으로 실제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Izard(1977)의 DES에 준하여 감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중 의복자극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후회하는, 죄책감을 느끼는, 비난받는의 죄책(guilt)항목을 제외한 27개의 감정어휘를 선정하고 단극의 7점 형용사척도를 구성하였다.

평가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산시내 거주 20대 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방법으로 예비조사 한 결과(2002년 2월 18일~22일) 의복자극물을 보고 감정을 측정하기에는 의미가 부적절하거나 감정과 유사한 감정문항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 사용된 패션감성의 척도는 25쌍의 형용사 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감정은 패션감성의 척도와 구별하기 위해 18개의 명사형으로 항목의 수를 축소하여 수정되었다.

###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부산시내 거주하는 남·녀 97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일대일 대인면접방법으로 부산대앞, 서면 등의 2, 30대의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서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패션감성과 감정의 평가에 사용된 평가도구는 예비조사 결과 선정된 54개의 의복자극물과 25쌍의 패션감성으로 구성된 양극의 7점 척도, 그리고 18개의 감정어휘들로 구성된 단극의 7점 명사형 척도이다. 54개의 의복자극물은 모두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한 사람이 10~11개의 의복자극물을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의복자극물의 순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고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85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2년 3월 4일~9일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변량분석으로 통계처리되었다.

## IV. 결과 및 논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패션감성은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내재된 감정과 관련하여 구성요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복이미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이경희, 2001; 김유진, 이경희; 2003)를 참고로 하여 패션감성을 심미성, 성숙성, 개성, 여성성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패션에 대한 감정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나 김유진, 이경희(200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부정적 감정, 슬픔·두려움, 각성, 수치감, 즐거움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복조형성은 각각의 의복 조형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되어 전체적인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함으로 의복 조형요소를 형태, 색채, 재질, 무늬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형태는 외부형태인 실루엣과 내부형태인 장식적 요소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패션감성에 대한 의복의 조형적 특성

패션감성과 감정의 각 요인에 대한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감성을 종속변수로 형태, 색채, 재질, 무늬, 장식의 의복 조형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석은 분산분석을 확장한 것으로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이라도 분석이 가능하며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제공하므로(정충영, 최이규, 2000) F-value와 회귀계수 Beta 값에 따라 패션감성에 대한 의복 조형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심미성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형태와 재질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부정형 실루엣을 기준(Beta=0)으로 보았을 때 X-line과 A-line, V-line이 심미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H-line이 부정형 실루엣보다 심미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X-line이 다른 실루엣보다 심미적으로 평가된 것은 X-line이 섬세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이경희(199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매력적인 측면에서 의복의 형태가 보다 중요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재질에 있어서는 복합재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광택 재질, 비치는 재질, 부드러운 재질, 딱딱한 재질 모두 복합재질보다 심미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광택재질의 경우 실키한 광택은 고급스럽고 선호도가 높으며, 메탈릭한 광택은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내므로(오혜순, 이경희, 2000) 이러한 재질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의복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 심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의복 조형요소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형태와 재질을 고려하여 X-line과 A-line, 광택 재질, 딱딱한 재질을 활용한다면 보다 심미적인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성에 대한 의복조형성은 형태와 색채, 재질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부정형 실루엣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H-line, A-

line, X-line이 짧은 감성으로 평가되었고 V-line이 부정형 실루엣보다 성숙한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색채에 있어서는 복합 배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복합 배색이 단색과 2색 배색보다 짧은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복합 배색은 3색이상의 배색으로 다양한 색

의 연출에서 오는 흥미로움이 발랄한, 짧은 감성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색의 복잡함으로 인해 단색, 2색 배색보다 심미적이지 않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질에 있어서는 복합 재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복합 재질이 다른 재질

Table 1. Fashion Sensibility and Formative Properties

의복 조형성			Beta			
			심미성	성숙성	개성	여성성
형태	H-line		-.434	.466	1.972	-.210
	A-line		.390	.455	-.970	.425
	V-line		.381	-1.436	1.297	.501
	X-line		.576	.094	.108	0.067
	기타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101.16	369.24	10.33	23.81
F-value			58.57***	265.17***	6.77**	14.75***
색채	단색	유채	.238	-0.075	2.496	2.541
		무채	.168	-.893	2.222	.587
	2색	유사	.620	-1.733	1.406	.504
		대조	.344	-1.272	1.309	.319
		악센트	0.080	-.386	1.432	.982
	복합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97.63	410.24	167.32	189.92
F-value			22.57***	117.85***	43.84***	45.06***
재질	광택		.906	-1.509	-.350	.403
	비치는		.240	-0.015	1.086	.607
	부드러운		.438	-.121	-2.442	-.423
	딱딱한		.611	-.648	-1.584	-1.653
	복합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117.59	219.34	139.52	56.97
F-value			45.31***	105.01***	60.93***	23.52***
무늬	구상	사실적	-.404	-.477	.625	.277
		추상적	-.342	-.662	.712	.108
	비구상	정형	0.086	-.215	2.510	2.287
		비정형	-.383	1.057	.069	.055
	없음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82.58	187.00	13.32	145.63
F-value			31.82***	89.53***	5.82**	60.14***
장식	칼라&네크라인		-1.719	1.427	2.987	-1.170
	소매		-1.116	.751	3.712	-.735
	디테일		-1.388	2.291	2.245	-.463
	트리밍		-1.277	2.192	2.879	-.394
	없음		-1.399	1.854	2.651	-.654
	기타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26.19	14.77	142.36	69.61
F-value			7.57***	5.30***	46.63**	21.56**

\*\*\* $p < .001$ , \*\* $p < .01$ , \* $p < .05$

보다 젊은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성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복 조형요소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형태와 색채, 재질을 고려하여 H-line과 A-line, 3색이상의 복합배색과 복합재질을 활용한다면 젊은 감성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V-line과 유사배색을 활용한다면 보다 성숙한 감성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재질과 장식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질에 있어서는 복합 재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치는 재질이 복합 재질보다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광택 재질,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은 복합 재질보다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촉각적인 측면보다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재질효과가 부각될 때 개성적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다. 장식에 있어서는 복합 장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칼라&네크라인, 슬리브, 디테일, 트리밍, 장식적 요소가 없는 것 모두 복합 장식보다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식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테일과 트리밍보다는 칼라&네크라인, 슬리브와 같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장식할 경우 개성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복 조형요소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재질과 장식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재질을 함께 사용한 복합재질의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고, 슬리브 혹은 칼라&네크라인 부분을 과장, 강조하여 표현한다면 개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여성성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무늬와 색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실적 무늬, 추상적 무늬, 정형 무늬, 비정형 무늬 모두 여성성이 높게 나타났다. 색채에 있어서는 복합 배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단색과 2색 배색 모두 여성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유채색의 단색이 다른 배색보다 여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복 조형요소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무늬와 색채를 고려하여 정형 무늬, 사실적 무늬를 사용하고 유채색의 단색과 악센트 배색을 활용한다면 여성적인 감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 2. 감정에 대한 의복의 조형적 특성

감정의 각 요인에 대한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감

정요인을 종속변수로 형태, 색채, 재질, 무늬, 장식의 의복 조형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부정적 감정과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무늬, 형태, 재질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실적 무늬, 추상적 무늬, 정형 무늬, 비정형 무늬 모두 무늬가 없는 것보다 부정적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추상적 무늬는 다른 무늬에 비해 부정적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추상적 무늬가 조화롭지 못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가지므로 선호도가 낮게 평가된 김윤경, 이경희(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형태에 있어서는 부정형 실루엣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H-line, V-line이 부정적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고 X-line, A-line에서 부정적 감정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형태적 특성이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질에 있어서는 복합 재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치는 재질이 부정적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고 광택 재질, 부드러운 재질, 딱딱한 재질은 복합 재질보다 부정적 감정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비치는 재질의 경우 소재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노출이 직접적인 인체의 노출보다 오히려 대담하고 활동적일 수 있으나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김지연, 이경희(2001)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매력적이지 못한 재질의 감성이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의 부정적 감정은 색채, 장식의 측면보다 무늬, 형태, 재질의 측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의복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상적 무늬와 비치는 재질의 사용을 피하고 유사 배색과 디테일, 트리밍 등으로 장식성을 살린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슬픔·두려움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색채, 형태, 무늬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색채에 있어서는 복합 배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사 배색에서 슬픔·두려움이 높게 평가되었고 무채색, 유채색의 단색과 대조 배색, 악센트 배색은 복합 배색에 비해 슬픔·두려움이 낮게 평가되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부정형 실루엣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A-line, V-line에서 슬픔·두려움이 높게 평가되었고 X-line, H-line이 부정형 실루엣보다 슬픔·두려움이 낮게 평가되었다. A-line은 편안하고 여성적인, 풍성한

Table 2 . Emotion and Formative Properties

의복 조형성		Beta					
		부정적 감정	슬픔·두려움	각성	수치감	즐거움	
형태	H-line	.945	-.344	1.415	-.522	.163	
	A-line	-.893	0.089	-.674	.368	.218	
	V-line	.658	0.039	.590	-1.107	.396	
	X-line	-.180	-.245	-0.044	-.348	.577	
	기타	0.000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23.38	76.85	4.90	11.80	140.33	
F-value		12.82***	41.59***	3.07*	6.40**	75.50***	
색채	단색	유채	.361	-.825	2.358	-.166	1.133
		무채	1.233	-.441	1.596	-1.811	1.095
	2색	유사	-0.002	.288	.894	-1.296	.334
		대조	.227	-.334	.502	-.954	.312
		악센트	.561	-.975	.854	-.439	.500
	복합		0.000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30.02	99.85	248.83	103.83	96.61	
F-value		6.59***	21.60***	62.21***	22.52***	20.79***	
재질	광택	-.547	-0.048	-.675	.772	.399	
	비치는	.169	-.587	.647	-.384	.524	
	부드러운	-1.182	.717	-2.004	0.053	-.299	
	딱딱한	-.340	-0.014	-2.001	-.861	.110	
	복합	0.000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30.72	11.04	161.64	58.97	
F-value		11.23***	3.99**	67.35***	21.32***	23.92***	
무늬	구상	사실적	.441	-.220	.555	0.001	-.115
		추상적	.733	-.348	.473	-.785	.228
	비구상	정형	.173	-.497	2.310	-0.035	.383
		비정형	.205	-.772	0.094	1.170	-0.026
	없음		0.000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35.58	75.35	11.90	45.46	79.88	
F-value		13.01***	27.19***	4.96**	16.43***	28.66***	
장식	칼라&넥라인	1.560	-.432	2.182	.568	-.655	
	소매	1492	-.107	2.877	-.613	-.134	
	디테일	.886	-.446	2.060	1.302	-.445	
	트리밍	1.012	-.707	2.268	1.200	-.275	
	없음	1.045	-.462	2.264	1.103	-.437	
	기타	0.000	0.000	0.000	0.000	0.000	
type III SS		24.73	24.80	92.34	21.54	22.58	
F-value		6.78***	6.71***	28.86***	5.84***	6.08***	

\*\*\* $p < .001$ , \*\* $p < .01$ , \* $p < .05$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V-line은 형태가 주는 무게감에서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무늬가 없는 디자인이 다른 무늬에 비해 슬픔·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

슬픔·두려움의 감정은 색채, 형태, 무늬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무대의상 등과 같이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는 의복디자인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A-line, V-line의 형태와 유사배색을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것

이다. 그리고 재질의 특성을 살리거나 트리밍 등의 장식적 효과를 강조한다면 의복을 통한 슬픔·두려움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성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재질과 색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질에 있어서는 복합 재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치는 재질에서 각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광택 재질, 부드러운 재질, 딱딱한 재질은 복합 재질보다 각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비치는 재질과 복합 재질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주의를 끌고 놀람을 일으키지만 부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색채에 있어서는 복합 배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단색과 2색배색 모두 각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단색에서 다른 배색보다 각성이 높게 평가된 것은 다른 특성이 두드러지는 의복디자인이 모두 단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악센트배색은 작은 면적에 의해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 부분을 강조하고 전체이미지를 긴장시키는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므로 주의를 끄는 강한 인상의 표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을 통해 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복 조형요소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재질과 색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비치는 재질을 사용하여 섹시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을 표현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수치감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색채, 재질, 무늬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색채에 있어서는 복합 배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채색, 무채색의 단색과 유사 배색, 대조 배색, 악센트 배색의 2색 배색 모두 복합 배색보다 수치감이 낮게 평가되었다. 복합 배색은 3색 이상의 배색으로 너무 많은 색상과 톤의 사용될 경우 지저분함과 어색함으로 인해 수치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재질에 있어서는 복합 재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광택 재질과 부드러운 재질에서 수치감이 높게 평가되었다. 광택 재질은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므로 인체를 확대되어 보이게 하고 광택의 음영은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을 강조시키기도 하므로 우아하고 은은한 광택이 아닌 번들거리거나 야한 광택은 오히려 수치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실적 무늬와 비정형 무늬에서 수치감이 높게 평가되었고 추상적 무늬, 정형 무늬에서 수치감이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비정형 무

늬는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되어 지저분한 감성을 나타내므로 수치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의 수치감은 색채, 재질, 무늬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의복을 통해 수치감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너무 복합적인 색채 배색과 광택 재질, 비정형 무늬는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V-line과 슬리브 장식을 강조한 디자인은 어깨를 넓어보이게 하고 무게감과 형태감을 강조하여 권위적으로 보이게하여 수치감과는 관련이 낮으므로 V-line의 형태와 칼라&넥라인의 장식 요소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즐거움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형태와 무늬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부정형 실루엣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H-line, A-line, V-line, X-line 모두 부정형 실루엣보다 즐거움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X-line에서 다른 실루엣보다 즐거움이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추상적 무늬, 정형 무늬가 즐거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적 무늬, 비정형 무늬가 즐거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을 통해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복 조형요소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난 형태와 무늬를 고려하여 경쾌한 X-line에 정형무늬를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3. 의복조형성에 대한 패션감성과 감정의 관계

지금까지 패션감성과 감정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형적 특성에 대한 패션감성과 감정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Table 3과 같다.

먼저 형태에 있어서 H-line에서는 성숙성, 개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인 감정, 각성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A-line에서는 심미성, 성숙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슬픔·두려움,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V-line에서는 개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슬픔·두려움, 각성, 즐거움의 다양한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X-line에서는 심미성의 패션감성과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부정형의 실루엣은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의복조형성의 형태적 측면에서 V-line과 X-line을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개성, 심미성, 여성

Table 3. Fashion sensibility and Emotion on Formative Properties

의복 조형성		패션감성	감정	
형태	H-line	성숙성, 개성	부정적 감정, 각성	
	A-line	심미성, 성숙성, 여성성	슬픔 · 두려움, 수치감	
	V-line	개성, 여성성	부정적 감정, 슬픔 · 두려움, 각성, 즐거움	
	X-line	심미성	즐거움	
	기타	-	수치감	
색채	단색	유채	성숙성, 개성, 여성성	각성, 수치감, 즐거움
		무채	개성	부정적 감정, 각성, 즐거움
	2색	유사	심미성	슬픔 · 두려움
		대조	심미성	-
		악센트	여성성	부정적 감정
복합	성숙성	슬픔 · 두려움, 수치감		
재질	광택	심미성, 여성성	수치감, 즐거움	
	비치는	성숙성, 개성, 여성성	부정적 감정, 각성, 즐거움	
	부드러운	-	슬픔 · 두려움, 수치감	
	딱딱한	심미성	-	
	복합	성숙성, 개성	부정적 감정, 슬픔 · 두려움, 각성	
무늬	구상	사실적	여성성	부정적 감정, 슬픔 · 두려움, 각성, 수치감
		추상적	개성	부정적 감정, 즐거움
	비구상	정형	심미성, 개성, 여성성	각성, 즐거움
		비정형	성숙성	수치감
없음	심미성, 성숙성	슬픔 · 두려움		
장식	칼라&넥크라인	개성	부정적 감정	
	소매	심미성, 개성	부정적 감정, 슬픔 · 두려움, 각성, 즐거움	
	디테일	성숙성	수치감,	
	트리밍	성숙성, 여성성	각성, 수치감	
	없음	-	-	
	기타	심미성, 여성성	슬픔 · 두려움, 즐거움	

성 등 다양한 패션감성을 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채에 있어서는 유채색의 단색에서 성숙성, 개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각성, 수치감,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무채색의 단색에서는 성숙성, 개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각성,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유사배색에서는 심미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각성,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악센트 배색에서는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복합배색에서는 성숙성의 패션감성과 슬픔·두려움,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단색을 사용한다면 배색에 의한 연출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

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유채색의 사용은 색상과 톤의 특성에 따라 성숙성, 개성, 여성성 등 다양한 패션감성을 나타내며, 무채색은 개성을 나타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재질에 있어서 광택 재질에서는 심미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수치감,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비치는 재질에서는 성숙성, 개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각성,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드러운 재질에서는 슬픔·두려움,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고, 딱딱한 재질에서는 심미성의 패션감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복합재질에서는 성숙성, 개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슬픔·두려

움, 각성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광택 재질은 심미성이 뛰어나더라도 수치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치는 재질은 성숙성, 개성, 여성성의 감성을 나타내더라도 부정적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각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재질을 사용할 때는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무늬에 있어서 사실적 무늬에서는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슬픔·두려움, 각성,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추상적 무늬에서는 개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즐거움의 상반되는 감정이 높게 평가되는데 추상적 무늬의 사용에 있어서는 표현방법과 구성효과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감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형무늬에서는 심미성, 개성, 여성의 패션감성과 각성, 즐거움의 감정이, 비정형 무늬에서는 성숙성의 패션감성과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무늬가 없는 디자인은 심미성과 성숙성의 패션감성과 슬픔·두려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 유발과 심미성, 개성의 패션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형 무늬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장식에 있어서 칼라&네크라인의 장식은 개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슬리브의 장식은 심미성, 개성의 패션감성과 부정적 감정, 슬픔·두려움, 각성,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디테일은 성숙성의 패션감성과 수치감의 감정이, 트리밍은 성숙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각성, 수치감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복합장식은 심미성, 여성성의 패션감성과 슬픔·두려움, 즐거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장식에 의한 패션감성과 감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슬리브를 강조하여 장식한다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심미성, 개성의 패션감성 연출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감성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심미성은 의복조형요소 중 형태와 재질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X-line과 광택 재질이 심미적으로 평가되었다. 성숙성은 형태와 색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H-line과 복합배색이 높은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개성은 재질과 장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

으며 비치는 재질과 슬리브를 강조한 장식이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여성성은 무늬와 색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형무늬, 무채색의 단색이 여성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감정에 대한 의복조형성을 살펴보면 부정적 감정은 의복조형요소 중 무늬와 형태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추상적 무늬와 V-line이 부정적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슬픔·두려움의 감정은 형태와 무늬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A-line과 무늬가 없는 디자인이 슬픔·두려움의 감정이 높게 평가되었다. 각성은 재질, 색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비치는 재질과 유채색의 단색이 각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치감은 색채와 재질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복합배색과 광택재질이 수치감이 높게 평가되었다. 즐거움은 형태와 무늬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X-line, 정형무늬가 즐거움이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조형적 특성에 대한 패션감성과 감정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조형요소는 패션감성과 감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의복조형성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V-line과 X-line을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개성, 심미성 등 다양한 패션감성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며, 색채에 있어서는 단색이 배색에 의한 연출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재질에 있어서는 광택 재질과 비치는 재질이 다양한 감성과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무늬에 있어서는 정형 무늬가 긍정적인 감정 유발과 더불어 심미성, 개성의 패션감성을 표현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장식에 있어서는 슬리브가 강조된 디자인이 다른 장식적 요소보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심미성, 개성의 패션감성 연출에 있어서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비자의 감성적 만족을 위한 디자인 개발과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 차원인 감성과 감정, 제품의 물리적 차원인 제품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과정에 있어 Izard(1977)의 감정척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감정어휘의 수집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패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의 측정도구 개발과 함께 좀 더 세분화된 의복조형요소와 감성, 감정과의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규식. (1995). 감성의 기능화를 통한 신제품개발에의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8(1), 33-50.
- 김미지자. (1996). *Texture & Colo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진. (2002). *패션감성과 감정에 대한 의복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진,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의 척도화 과정. *한국감성과학회지*, 4(1), 33-42.
- 김유진, 이경희.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미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963-965.
- 김유진, 이경희. (2003). 현대패션에 대한 감정과 감성의 관계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7(3/4), 418-428.
-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861-872.
- 김윤희. (1993). *제품의 감성적 인식 구조에 관한 연구-주방 기기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장호. (1996). 디자인조형에서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0(16), 199-210.
- 김진호, 손제성, 유승동, 박범, 박진규. (2002). 에어쿠션 사무용 의자의 사용성 및 인체 적합성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23-326.
- 김지연, 이경희.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 노출의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913-924.
- 박은주, 소귀숙. (2000). 의류제품 구매시 감정적 요인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3), 361-372.
- 박수진, 조경자, 장준익, 김길남. (1997). 직물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어휘모형.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박수진, 장준익, 정찬섭. (1998). 직물디자인 감성 이미지 스케일.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수찬, 배금중, 박명규, 임정목. (2002). 사무용 의자의 Mechanism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33-337.
- 오해순, 이경희. (2002).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10), 114-125.
- 유창조. (1996). 쇼핑행위의 경험적 측면 : 쇼핑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이 매장태도와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7(1), 51-69.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715-726.
-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5(3), 573-547.
- 이경희, 김유진. (2001). 패션감성과 의복조형성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845-855.
- 이영진. (1997). *감성공학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승, 이주현. (1998). 소비자 감성분석을 기반으로 한 꽃문양 스카프 디자인의 레이아웃 기법 제안. *한국감성과학회지*, 1(2), 22-33.
- 조현승, 지상현, 이주현. (1998). 섬유 패턴 디자인의 요소 분석체계 개발가능성.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충영, 최이규. (2000).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 최선형, 이은영. (1994). 의복착용시 경험하는 감정의 유형. *한국의류학회지*, 13(3), 395-409.
- 황상돈, 기도형. (1999). 승용 자동차 후드 설계를 위한 다변량 해석형 감성공학의 적용. *산업기술연구소 논문 보고집*, 22(2).
- 황승인, 김경인. (1999). 색채감성척도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Kobayashi, & Singenobu. (1987). *A Book of Colors*. Kodansha International. Japan.
- 황상민, 김경인. (1999). *색채감성척도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서 재인용.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 Mehrabian, A., & Russel, J. A. (1974). *An Approach Environment Psych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per & Raw Publisher.